

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세진 (ohsejin@kdb.co.kr)

- ◆ 소비자물가는 주요국 경기부양 및 백신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소비관련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등이 급등하며 2%를 상회
- ◆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,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크며, 한시적으로 민생관련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

□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2% 상회

○ 코로나19로 '20년 1% 이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'21년 들어 주요국 경기부양 및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

* 소비자물가 상승률(yoy) : ('21.4월) 2.3% → (5월) 2.6% → (6월) 2.4%

-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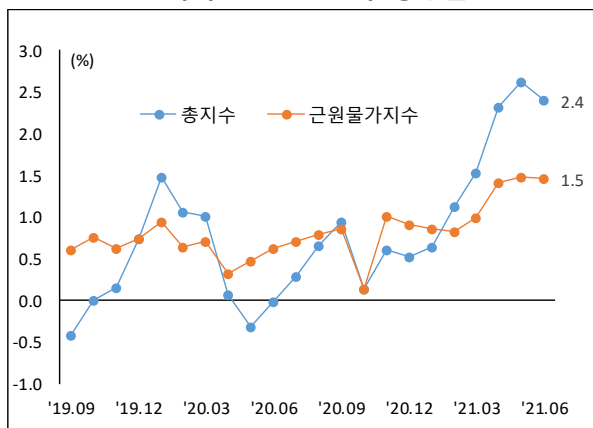
○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'20.9월 이후 10%가 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, 최근에는 경기회복으로 석유류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

- 농축수산물 가격은 가축 전염병 확대,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감소,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,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등이 겹치면서 높은 상승세 지속

- 공업제품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

* 석유류 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1.4월) 13.4% → (5월) 23.3% → (6월) 19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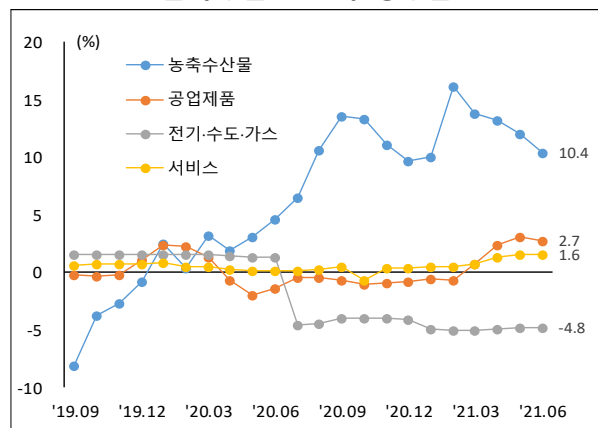
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



주 : 근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의미

자료 : 통계청

품목성질별 물가 상승률



자료 : 통계청

□ 향후 농축수산물 및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 서비스, 공산품 등의 가격인상 압력은 상존

○ 상반기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요 원자재가격*은 하반기 공급안정 및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 둔화 예상

* 5월 주요 수입품목 가격 상승률(yoy) : 원유 117.7%, 열연강대·강판 81.8%, 식용정제유 81.4%, 콩 66.2%, 옥수수 65.3%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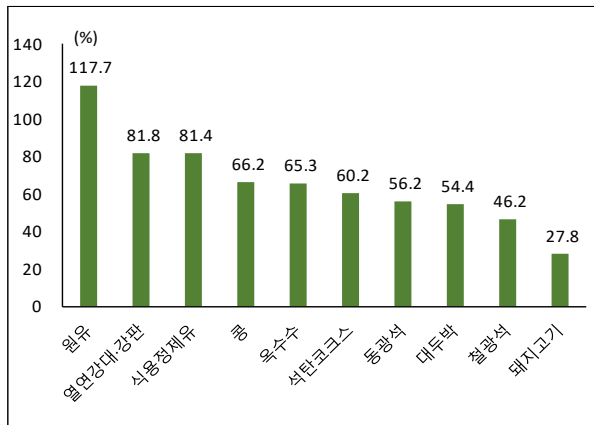
-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전세계적인 수요 급증도 있지만, '20.3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며 수입품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음

* 수입물가지수 상승률(yoy) : ('20.3월) △14.6 → (4월) △20.4 →(5월) △20.4

○ 이전보다 높아진 원자재가격은 시차를 두고 식료품 등 소비재, 내구재,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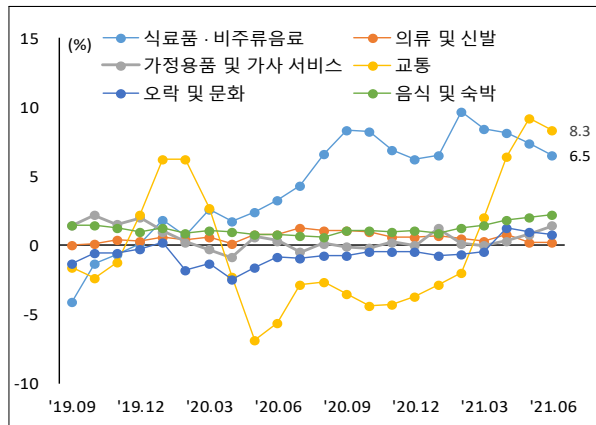
* 원자재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(10%)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최대 0.2%(4분기후) 상승(한국은행 (2021), "국제원자재가격 상승배경 및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점검")

2021년 5월 주요 제품의 수입단가 상승률



주 :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주요 지출 목적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 : 통계청

□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, 전년도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

○ 다만 민간소비, 임금 등이 크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○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일부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가능